

# 연 3만명 교육...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어디로 가나

### 전남도 500억 들여 이전 ... 9개 시군 유치 나서

### 6월말 후보지 선정 도립미술관 유치전도 치열

연간 3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의 유치하려는 전남 9개 시·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도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발주해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일 정도다.

이전 부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용역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은 오는 2020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며, 여기에는 모두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 현 부지(4만㎡)는 현재 공시지가 86억원, 시가 120억원 규모로 아파트 단지 개발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현재 29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2014년 157개 과정에 3만231명의 공무원, 민간업체 직원 등이 찾아 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장·단기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숙식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이라는 게 전남도와 각 시·군의 판단이다.

공무원 교육원 관계자는 “광주와는 달리 시·군으로 갈 경우 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종에 직접적인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 거론되거나 지역여론, 주민견의, 도의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치의사를 표명한 시·군은 모두 9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여수, 순천 등 동부권은 물론 강진, 담양, 장성, 장흥 등 중부권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1억2000만원의 용역을 발주

해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안전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최종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8년 준공될 전남도립미술관 신축부지 역시 용역으로 결정된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도립미술관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시작해 6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립미술관은 7000~8000㎡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비 200억원, 부지 매입비 50억원, 작품 구입비 5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이 투입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산하단체 첫 인사청문 대상

###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누가 될까

### 1차 서류심사서 6명 모두 통과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첫 인사 청문회 대상자인 제5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원장 공모에 신광조(57) 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정용준(59)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임형진(56)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시산업진흥회 출신 1명,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출신 2명 등 총 6명이 응모했으며, 이날 진행된 1차 서류심사에서 6명 모두 합격사유가 없어 통과했다.

다만 사장과 함께 공모한 비상임 이사 3명은 응모자 미달로 조만간 재공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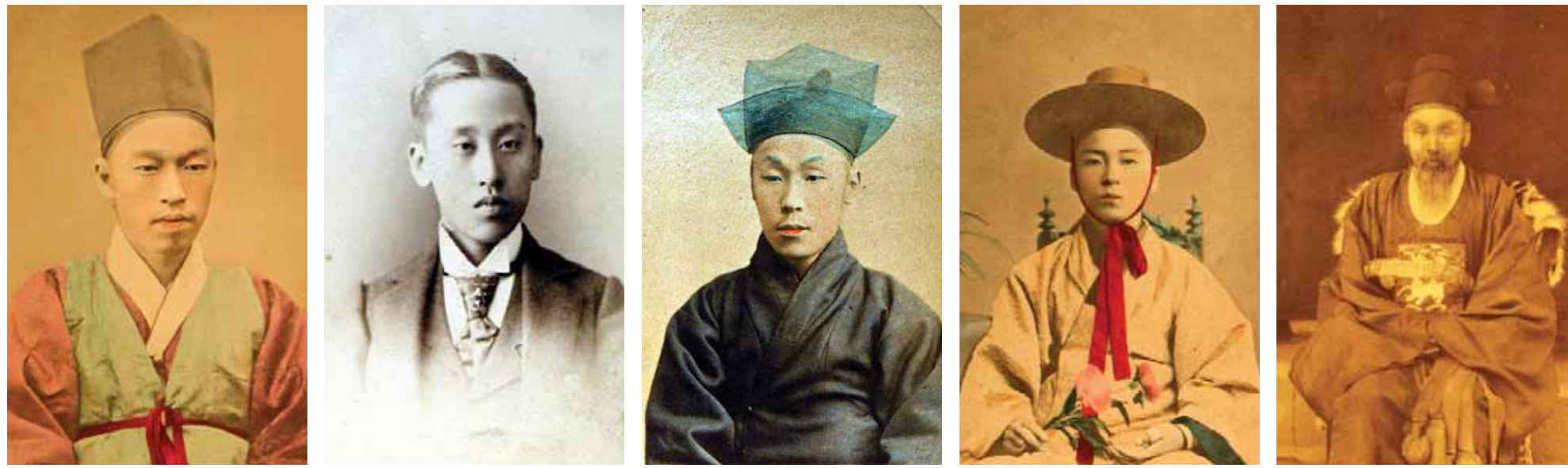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1일 면접을 거쳐 2배수 후보를 윤장현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윤 시장은 2명 중 1명을 사장 내정자로 정하고, 시의회 인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장 내정자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그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1~4대 사장에 코트라 출신이 모두 선임됐다는 점에서 비코트라 출신 사장 탄생 여부도 관심이다.

제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신광조 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명예퇴직 후 지난 6·4지방선거 때 광주 서구청장에 출마했으며, 광주제일고-연세대를 졸업한 정용준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제일고-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주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해 외부 인맥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민선 5기 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임형진 전 광주시의회는 목포고-명지대 출신으로, 대한교육보험 사원과 중앙증권 서초지점 부지점장, 광주시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젊은시절 김육균·꽃을 든 서재필... 대한제국의 인물들

양상현 순천향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그리피스 컬렉션' 근대 한국 사진자료 중 대한제국 황실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피스 컬렉션'은 '은자의 나라, 한국'의 저자 윌리엄 그리피스가 평생 모은 한국 자료이다. 왼쪽부터 박영호, 미국 유학시절의 의친왕 이강, 젊은시절의 김육균, 어린 시절의 서재필, 흥선대원군의 47세 때 모습. /연합뉴스

### 혁신도시 사물인터넷 사업 대폭 축소

### 전남도, 기재부 "경제성 낮다" 지적에

전남도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사물인터넷(IOT)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다.

전남도는 2일 "기재부 평가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계획을 당초 1106억3000만원 규모에서 673억원으로 낮추면서 11개 세부사업 중 4개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영상감시 생태환경 감시, 병충해 예방, 식량작물·과수 재배 관측 시스템 실증 등을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 지역민, 공공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당초 전남도는 국비 697억4000만원 등 1106억3000만원을 들여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지 9314㎡에 지하 1층, 지상 3층 사물인터넷 통합센터를 구축해 실증사업 9건, 인증평가,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국비 414억7000만원 등 673억원을 조정해 센터를 건립하는 대신 입자로 전환하고, 세부 사업도 농생명 분야로 특화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예산을 통과시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크다"며 "이달 내로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인간다운 삶' 위한 복지기준 만든다

### 추진위 출범... 소득·주거 등 5개 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광주시에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민 복지기준'인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높은 복지를 누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기준선이 마련된다.

광주시는 2일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학계,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위는 5개 분과별로 회의와 토론,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발표와 함께

시행한다. 시민이 누려야 할 적정 소득기준과 주거기준 및 문화·환경·안전 등 적정 주거기준도 마련한다.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확보 방안, 맞춤형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아동·여성·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 기준도 세운다.

건강복지서비스 수준 분석과 적정지원 기준, 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보편적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방안 등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시는 각 분과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행정지원을 구성, 시민복지기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종합구상 및

실행방안 등을 지원하고 분과별로 자체 TF를 꾸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복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질 높은 삶 향유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열악한 예산만 핑계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광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참여

### 저탄소 녹색아파트 40곳 모집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전기, 수도 등 사용량을 줄이고 자전거 등 그린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저탄소 녹색아파트 4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방식으로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골드, 실버, 일반 3등급으로 나눠 40개 아파트를 선정해 4월부터 10월 까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후 연말 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급별 인증증판도 수여할 예정이다.

사업 평가 대상은 전기, 가스, 상수도,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도보, 자전거 등 그린교통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분야 등 녹색생활 실천 2개 분야 13개 항목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062-601-1321. /박진표기자 lucky@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0억 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